

## 새로운 자료로 만나는 김기영 : 김기영 문헌자료 컬렉션

금동현(영화사연구자, 《마테리알》 편집진)

### 1. 컬렉션 소개

1953년부터 1990년까지 총 35편의 영화를 연출한 영화감독 김기영(金綺泳)은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은 김기영의 장남 김동원, 촬영감독으로 연을 맺은 정일성, 『김기영 시나리오 선집Ⅱ』(이하 『선집Ⅱ』)<sup>1)</sup>를 편집한 김홍준 등의 기증 자료를 포함해 총 249점(복본 제외)의 김기영 관련 문헌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김기영 문헌자료 컬렉션>은 이 249점의 자료를 연구자와 영화 애호가 간 편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은 (1) 시나리오 판본 각각의 생산 시기와 (2) 육필이다. 한 편의 영화에 시나리오 판본은 여럿 존재한다. 그 이유는 창작자의 불만족 혹은 제작사의 요구 등 다양하겠지만, 1997년 사전 심의 폐지 이전에는 검열 당국의 심의 사항 준수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55년부터 1990년에 이르는 김기영 감독의 활동 시기는 시나리오 및 극영화 심의가 이뤄진 시기와 고스란히 겹친다. 국가 검열은 당대 창작자에게 불운이었을지 모르나, 후대 연구자는 심의 과정에 생산된 수많은 서류를 통해 해당 작품의 생산 환경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활용해, 본 컬렉션에서는 심의 서류에 기재된 시정 요청 사항과 기안 연월일을 활용해 시나리오 판본의 생산 시기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런 이유로 심의 서류가 일부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천사여 악녀가 되라(죽어도 좋은 경험)>(1990)와 같이 시기 판정이 어려운 시나리오도 일부 존재했다.) 개별 시나리오 판본의 생산 시기에 대한 정보를 참고해 최종 결과물=영화를

소실점으로 삼아 이 자료들을 연대순으로 살핀다면,<sup>2)</sup> 우리는 김기영 아이디어의 변천 과정 혹은 검열 당국과 김기영 사이<sup>3)</sup>의 힘겨루기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육필이다. 김기영의 육필은 본 컬렉션 곳곳에 존재한다. 인쇄본 시나리오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가 육필 콘타·메모이며, 시나리오 대본 위에 육필 메모가 적혀있는 경우-이러한 자료는 인쇄본이 같더라도 다른 자료로 배치했다-도 상당히

2)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검열 과정을 완수했다는 의미에서 ‘최종 결과물=영화’가 항상 한국 영상자료원이 제공하는 VOD는 아니라는 점이다. 송아름의 지적처럼, 한국영상자료원 VOD에는 심의 서류에서 삭제 지시를 받은 경우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등 실사검열 전 원본인 네거티브 필름과 검열 이후 복사된 프린트본이 구분 없이 제공되고 있다. (송아름, 「1970년대 한국영화 검열의 역학과 문화정치」,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29쪽 참조.) 가령,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이 제공하는 <이어도>(1977)의 성교 장면은 실제 검열 과정에서는 대다수 삭제 조치되었다.

3) 행정적인 피검열의 당사자는 감독이 아니라 제작자였다.[검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준형, “검열서류 컬렉션- 한국영화 검열서류 독해를 위한 안내”,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KMDb) 누리집 참조.

<https://www.kmdb.or.kr/collectionlist/detail/view?colId=122> (최종확인: 2022.05.23.)

김기영은 타 제작사에서 영화를 만들기도 했으나, 본인 소유 제작사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을 지향했다. 가령 김수용은 김기영을 “앙드레 바쟁이 이상형으로 하는 제작, 각본, 연출, 흥행을 컴비 없이 단독으로” 접근하는 감독이라고 평했다.(김수용, “영화계 사람들 ④ 김기영”, 《영화예술》, 1990.06., 118쪽.) 이러한 맥락에서 김기영이 제작 측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1) 김기영, 김홍준 편, 『김기영 시나리오 선집Ⅱ』, 한국영상자료원, 2008.

다. 하지만 육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물 번짐으로 인한 얼룩(blots)이 육필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경우가 잦았고, 자료 손상이 없는 경우에도 간체자·일본어를 섞어 사용하는 김기영의 “암호 같은 글씨”와 메모 배치의 두서없음은 독해를 가로막았다. 그럼에도 앞서 시나리오 판본들이 하나의 작품으로서 독자·주로 검열관·에 읽히기를 염두에 둔 데 반해, 육필 메모는 ‘예술적 형상화’에 앞서 의도를 투명하게 비치거나 순간적인 인상을 잡아두고 있기에 주목을 요한다. 가령, 시나리오 「고려장」의 한 판본(소장자료 관리번호 CKN008250\_01)에서 “S#4 칠봉 집 마당” 부분에는 김기영의 육필로 “(귀신 집)”이라 적혀 있다. 이는 김기영이 칠봉의 십형제(十兄弟)가 기거하는 곳을 무시무시하게 그렸음을 입증해준다. 독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나 그 한계보다 이러한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기에, 이번 컬렉션에서는 일부 문구에 대해서는 부정확할지라도 해독을 시도했으며 자료해설을 통해 해당 육필 자료를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국영화사에서 김기영 감독이 다뤄진 방식을 고려하면 <김기영 문헌자료 컬렉션>은 특히 뜻깊은 전기를 마련하리라 기대된다. 1963년 영화평론가 이영일이 최초의 김기영 감독론을 “감독론의 대상으로서 생각할 때 가장 정체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김기영이다”로 서두를 열었을 때부터,<sup>4)</sup> 한국영화 담론에서 김기영은 다소간 예외적인 존재, 곧 특이아<sup>5)</sup>·괴인<sup>6)</sup>·돌연변이<sup>7)</sup>로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중심이 아닌 외곽으로 시선을 돌려 찾아낸 주변적이고 하위적이어서 매력적인 영화”에 대한 열광, 즉 컬트 현상으로 김기영이 재발견되면서 더욱 증대되었다.<sup>8)</sup> 한 역사학자가 옛 지도에서 괴물의 존재를 역사학에서 탐구의 미진함으로 빚대었듯,<sup>9)</sup> 여백(돌연변이) 혹은 과잉(특이아, 괴인)은 한국영화사 연구에 김기영이 여전히 미답의 영역으로 남아

있음을 암시한다. 기실 “매스컴 쪽은 물론 영화 종사자들과도 접촉을 꺼리는” 생활 습관 때문인지,<sup>10)</sup> 김기영은 작가 연구의 기초 토대로 기능할 수 있는 자기 서사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1960~70년대의 또 다른 대표적 영화감독 김수용·신상옥·유현목이 단행본 자서전을 출간<sup>11)</sup> 및 전문 연구자와의 구술 채록을 했으나,<sup>12)</sup> 김기영은 자서전도 구술 채록도 남기지 않았다.<sup>13)</sup> 이러한 점에서 김기영 연구의 실증적 토대는 다소 빈약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김기영 문헌자료 컬렉션>을 통한 관련 사료의 포괄적 정보 공개는 김기영 연구의 실증적 확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컬렉션을 소개하며 발견한 몇 가지 새로운 사례를 두서없이 소개해보고자 한다.

10) 이만재, 「베일속의 巨匠監督 金綺泳」, 『사랑받는 사람들』, 울성사, 1979, 85쪽.

11) 김수용, 『나의 사랑 씨네마』, 씨네21북스, 2005; 신상옥, 『난, 영화였다』,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 유현목 『영화인생』, 혜화당, 1995.

12) 김수용 구술 연구는 2012년 한국영상자료원(채록연구: 권용숙)을 통해 진행되었다. (“김수용”, 『아카이브 프리즘』 4호, 한국영상자료원, 2021, 227-275쪽 참조.) 유현목 구술 연구는 2004년 아르코예술기록원(채록연구: 조혜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구술채록: 유현목”, 아르코예술기록원,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누리집 참조. <https://www.daarts.or.kr/handle/11080/16560> (최종확인: 2021.11.14.)

신상옥 구술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2008년 한국영상자료원 원로영화인 구술채록사업의 주제로 ‘신평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준형, 『영화계국 신평름』, 한국영상자료원, 2009, 8-9쪽 참조.)

13) 김기영은 정기간행물(김기영, “영화인 가족”, 『스크린 뉴스』, 1965.05.; 김기영, “털어놓고 하는 말-그 많던 애인은 다 어디갔소?”, 『뿌리깊은 나무』, 1978.07.; 김기영, “반역정신으로 영화 <초설>을 만들던 때”, 『영화예술』, 1992.05.)과 단행본의 부록(김기영, 『여정』, 『명화수첩』, 동아일보사, 1971), 인터뷰(이효인, 「김기영」, 『한국의 영화감독 13인』, 열린책들, 1994; 이연호, “반 백년의 고독과 서른 하나의 영화 사랑”, 『KINO』, 1997.01.) 등에서 부분적으로 자기 기술을 했으나, 본격적인 작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유지형이 쓴 『24년간의 대화』(선, 2006)가 그 부제처럼 ‘인터뷰 集’으로 구성되어 종종 활용되나, 이 책은 유지형이 김기영 사후死後 그와의 대화를 ‘기억’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기에 자기 기술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신뢰도를 고평가하기도 어렵다.

4) 이영일, “육망=검은 피의 마성”, 『씨네마』, 1963.01., 56~58쪽.

5) “일본군대의 「새디즈」 추구 / 김기영 감독 「현해탄은 알고 있다」”, 『한국일보』, 1961.11.12.

6) 김덕조, “「고려장」을 통해서 본 김기영 감독의 작품세계”, 『영화세계』, 1963.05., 92쪽.

7) 이효인, 이정하, 『한국영화 싹김』, 열린책들, 1995, 285쪽.

8) 정한석, “탐닉자의 별자리-1990년대 시네필과 시네필리아의 일면에 관하여”, 『문학동네』 제24권 1호, 문학동네, 2017, 626쪽.

9) 존 루이스 개디스, 강규형 역, 『역사의 풍경』, 예코리브르, 2009, 61쪽.

1) 『김기영 시나리오 선집 I』(이하 『선집 I』)<sup>14)</sup>에 수록된 시나리오 「양산도」는 1955년 개봉 영화 <양산도>와 무관하다. 시나리오 「양산도」(『선집 I』)의 내용이 영화 <양산도>(1955)와 달랐음이 명백했으나, 김기영이 시나리오 「양산도」(『선집 I』)에 앞서 붙인 해설이 1955년 당시 제작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시나리오에는 <양산도>(1955)와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 컬렉션 조사를 통해 시나리오 「양산도」(『선집 I』)와 내용이 동일한 시나리오 「양산도」(소장자료 관리번호 CCN000848\_01)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나리오(CCN000848\_01)의 해설에서 김기영은 창작 계기를 “박암 선생의 영전에서 고설봉 씨가 날더러 이 작품을 다시 하도록 영전에 맹세케 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암이 1989년 3월 23일에 별세한 후 25일부터 그의 장례식을 진행했으므로,<sup>15)</sup> 이 시나리오(소장자료 관리번호 CCN000848\_01) 그리고 그와 내용이 동일한 『선집 I』 수록 시나리오 「양산도」 또한 1989년 3월 이후 집필된 게 분명하다.

2) 『한국 시나리오 선집 제3권: 1961-1965년』<sup>16)</sup>에 수록된 시나리오 「현해탄은 알고 있다」는 한국영상자료원에 보존 중인 시나리오 「현해탄은 알고 있다」(소장자료 관리번호 CKN002287\_01)의 인쇄본 부분과 동일한 것으로, 초고에 해당한다. 김홍준이 『선집II』에서 “(『한국 시나리오 선집 제3권: 1961-1965년』 수록 「현해탄은 알고 있다」-인용자) 대본은 완성된 필름과 대사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신이 거의 없고, 특히 마지막 부분은 영화와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썼듯,<sup>17)</sup> 한국영상자료원 보존 시나리오(CKN002287\_01)는 영화 <현해탄은 알고 있다>(1961)와 완전히 다르다. 그 이유는 해당 시나리오의 첫 쪽 ‘초고에 대하여’라는 짧은 글에 적힌 “많은 씬과 많은 대사를 준비해왔습니다. 실지 촬영에 있어서는 삼분지일이 압축될 겁니다. 그리고 원작의 인기 높은 대사를 모조리 추려 넣겠습니다. 많이 충고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을 통해 해명된다. 김홍준이 ‘특히’라 강조했고 번역가 홍지호가 “<이어도>의 악명 높

은 클라이맥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칭한 인상적인 결말 장면은 이 시나리오(CKN002287\_01) 인쇄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sup>18)</sup> 그 인상적인 결말 장면은 인쇄본에 덧붙여 있는 “초고 뒷부분이 너무 처참하고 어두어 「해피엔딩」으로 개작해서 영화를 완성시켰다 다음 면(頁)에 기재한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육필 원고지 12쪽 부분에 존재한다.

3) <렌의 애가>(1969)의 시나리오 판본들은 흥미롭다. <렌의 애가>는 김기영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언급이 없는 영화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KMDb 온라인 VOD 서비스 및 복원, 물리매체 출시가 모두 이뤄지지 않은 낮은 접근성에서 먼저 찾을 수 있다. 다만 복원·물리매체 출시가 상대적으로 인지도 높은 영화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음을 고려하면, 근본적 이유는 <렌의 애가>에서 존재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렌의 애가>의 렌이 ‘지고지순한 여성’으로 재현된다는 점이 적잖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하녀>(1960), <충녀>(1972) 연작의 ‘명자(들)’처럼, 김기영 영화의 큰 재미는 가부장제에서 이탈하는 여성상에서 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나리오 「렌의 애가」 판본들을 검토하면, 애초 렌이 ‘명자(들)’에 가까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렌의 애가>의 시나리오에는 세 판본이 존재한다. 1967년 04월 한국예술영화주식회사에서 제작 신고한 판본(소장자료 관리번호 DCKO002708\_01), 1969년 03월 세기상사주식회사로 제작자 명의 교체 이후 완성된 두 판본(소장자료 관리번호 CKN004884\_01, DCKD016819\_01)이 그것이다. 렌이 ‘명자(들)’에 가까운 것은 한국예술영화주식회사 제작 신고 당시 제출한 시나리오 「렌의 애가」(DCKO002708\_01)다. 가령 <렌의 애가>(1969)나 다른 두 판본(CKN004884\_01, DCKD016819\_01)에서 렌이 “밤색시”로서 시몬과 섹스를 한 것은 관객에게 마지막 장면-렌의 손에서 시체를 발견함으로써-에 반전으로 제시될 뿐, 렌은 줄곧 지고지순한 여성상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한국예술영화주식회사 시기 집필한 「렌의 애가」(DCKO002708\_01)에서 렌이 “밤색

14) 김기영, 『김기영 시나리오 선집 I』, 집문당, 1996.

15) “영화배우 박암 씨 별세”, 《중앙일보》, 1989.03.23.

16) 영화진흥공사 편, 『한국 시나리오 선집 제3권: 1961-1965』, 집문당, 1990.

17) 김기영, 김홍준 편, 앞의 책, 16쪽.

18) 홍지로, “현해탄은 알고 있다: 3월의 영화”,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누리집, 2018.03.15.

<https://www.kmdb.or.kr/story/10/1286> (최종확인: 2021.10.13.)



시”로서 시몬과 섹스를 한 것은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렌은 시몬에게 “밤색시”의 존재를 묻고 스타일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했던-김기영 연구의 대상으로서 개별 시나리오 판본을 연구할 필요성을 낳는다.

영화 완성 과정에서 여러 판본의 시나리오가 집필되며 내용도 종종 변화한다는 점에서 위 사례는 특기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예술영화주식회사에서 세기상사로의 제작주관 교체가 렌 성격의 변화를 동반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한국예술영화주식회사는 김기영과 아주 가까운 제작사였다. 김기영이 <초설>(1958), <고려장>(1963), <아스팔트>(1964), <병사는 죽어서 말한다>(1966)를 한국예술영화주식회사에서 제작했을 뿐 아니라, 제작사 사장 박원석은 김기영의 평양고보 후배이며 오영진이라는 인맥을 공유하는 관계였다.<sup>19)</sup> 이러한 맥락에서-모든 영화에서 제작을 하고 싶어 했던-김기영이 한국예술영화주식회사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측에 기반 한다면 세기상사로의 제작자 교체가 렌 성격의 변화를 동반한 것은, 제작사 곧 시장에 의한 검열 사례로 탐구할 여지를 준다.

4) 「수녀」(소장자료 관리번호 CKN003199\_01)는 김기영의 영화 <수녀>(1979)와는 무관한 1973년 집필된 육필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는 본문 뒤 원고지 네 쪽 분량의 해설이 있다. 김기영은 해설에서 이렇게 썼다. “(세계 시장-인용자) 출판 영화는 좋은 영화도 필요하겠지만 개성이 뚜렷한 영화에 승산이 있는 거다. 가왈부왈 소아병적인 비판은 의욕을 위축시키기는 할망정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 김기영이 1970년대 특히 시체스국제영화제(SITGES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of Catalonia) 출품을 목적했음을 고려하면,<sup>20)</sup> 위 인용문은 김기영 필모그래피에서 1972년 <충녀>에서부터 서사의 과감한 삭제-장식적인 미장센이 특히 도드라지기 시작한 이유를 일부 해명한다.

19) 주지하듯 김기영을 영화계로 이끈 것은 오영진이었다. 박원석은 오영진의 외조카였다. “클로즈·업 되는 外畫輸入界의 「라이탈」”, 《씨네팬》, 1960.11., 57-58쪽 참조.

20) 금동현, “협잡꾼 당신-『김기영 평전』을 위한 단편”, 《마테리알》, 2021.01.  
<https://ma-te-ri-al.online/19721795> (확인:2021.11.23)

5) 「<화녀 82>의 촬영용 콘티뉴이티가 그려져 있는 수첩」(소장자료 관리번호 CKC000006\_01)은 1980년도 스프링노트에 콘티·설정·대사 등 <화녀 82>(1982)를 위한 총 131개 쪽의 육필 메모가 있다. 이중 두 번째 페이지에는 명자, 부인, 동식 소개가 간략하게 적혀 있는데, 명자의 “딸꼭질, 귀후빈다, 머리 입에 문다” 등 세부적인 행동이 모두 설정되어 있다. <수녀>(1979)부터 김기영 감독의 연출부로 활동하고 <화녀 82>에서 조감독을 지낸 강철웅이 김기영이 현장에서 배우의 연기·소도구 등 모든 부분을 장악했다고 회고했듯,<sup>21)</sup> 「<화녀 82>의 촬영용 콘티뉴이티가 그려져 있는 수첩」은 김기영의 많은 요소가 세부적 연출 지도에 의해 의식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방증한다.

6) 김기영의 미완성 시나리오 「악녀」를 바탕으로, 리바이벌 영화 <악녀>가 기획된 바 있다. 리바이벌 「악녀」 시나리오(소장자료 관리번호 CCN001423\_01)는 이렇게 시작한다. “건물이 온통 화염에 쌓여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다. 그 병원 출구를 통해 검은 구관조 한 마리가 빠져 나와 검은 연기가 치솟는 어두운 하늘 저편으로 날아 사라져 간다. / 작막: 이 시나리오는 나의 마지막 영화 작업을 위한 작품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영화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는다. (故 김기영 감독과의 <꿈의 대화> 중에서...)” 첫 장면부터 김기영이 화재로 사망한 사실을 이미지화하고 자막을 통해 적시하며 시작하는 이 리바이벌 「악녀」는 <악녀>의 제작/홍보 기획서(소장자료 관리번호 ZC0000018\_01 ·자료 분류: 기타자료 ·자료명: 악녀)의 “그(김기영-인용자)가 사후, 통과 의례를 따라 3년 상을 치룬 후 이제 그의 녀과 혼이 한 편의 영화가 되어 우리에게로 온다”는 문구를 통해 2001년 이후 기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획 주체는 “김정조(영화제작자/한영영화사 대표), 정일성(촬영감독), 김지현(시나리오 작가), 유현목(영화감독), 김동원(유족 대표/김기영 감독 장남)”으로 구성된 “김기영 감독 영화 만들기 5인 위원회(가칭)”다. 서두에 구로사와 아키라의 “유작 시나리오를 그의 가족을 위시하여 동료들과 후배 영화인들에 의해 다시 만들어 지듯”이라는 문구를 통해, 해당 기획에 미친 <비 그치다 雨あがる>(고이즈미 타카시, 1999)의 영향을 찾을 수도 있다.

21) 강철웅, 정경담, 함연선, 금동현, 「김기영의 (개)자식들: 강철웅 인터뷰」, 《마테리알》, 2022.03.

## 2. 1984-1997년: 김기영의 공백기와 시나리오 「생존자」

1984년 <육식동물> 이후 김기영은 오랜 기간 외면 받았다. 1990년 <천사여 악녀가 되라(죽어도 좋은 경험)>를 연출했지만 이 영화는 전국 어디서도 개봉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실제 조감독 역할을 한 이정권의 이름으로 비디오 유통되었다.<sup>22)</sup> 1997년이 되어 서야 김기영은 다시 공식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해 김기영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50년 넘게 영화를 해왔는데, 이제 날 비석으로 만들려 하네.”<sup>23)</sup>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금년에 저를 불러주셔서 가지고, 저보고 다 부활했다고 그래요.”<sup>24)</sup> 김기영의 사상적 토대인 프로이드가 사소한 말에서도 진실을 포착했듯, 1985년부터 1997년까지 13년의 ‘외면의 시간’ 곧 공백기를 김기영은 죽음처럼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외적 외면과 별개로 김기영의 공백기는 결코 고요하지 않았다. 그는 1994년에도 스스로를 “현역 영화예술가”로 생각했고 “영화예술에 거보巨步를 남기고자 진력”하고 있었다[한국예술원 회원 입후보 의뢰서(소장자료 관리번호 ZH0000347\_01)]. 이 컬렉션에는 김기영이 영화에 대한 열의를 공백기에도 지속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간략히 정리한 다음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 공백기 동안 김기영은 영화 스튜디오 매수·제작사 창립·시나리오 집필 등 다방면으로 다음 영화를 준비했다. 이 장에서는 조사된 바 없는 공백기 시나리오 그중 특히 「생존자」를 통해 김기영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고자 한다.

22) 김기영을 대신해 감독자에 이름을 올린 이정권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당시 김 감독님은 이 작품을 만드시면서 개봉을 하려고 엄청 많이 알아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당시의 김기영 감독님의 작품이 지금 관객한테 먹힐까라는 것을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 중략 …) 그런 불안감, 그런 걸 생각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극장주, 거기서 좀 회피를 하셨다면 회피를 하셨고.” (2021년 08월 08일 더숲아트시네마에서 진행한 <죽어도 좋은 경험> 관객과의 대화에서 이정권 감독이 한 말이다.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 더숲아트시네마 이도훈 프로그래머의 도움으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 “일흔 여덟에 메가폰 다시 잡은 김기영 감독 반세기 영화인생 ‘악녀’에 바친다”, 《한겨레》, 1997.09.26.

24) <필름의 해부학자, 김기영 감독>, KBS, 1999, 43분. 인용문은 1997년 10월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핸드프린팅 행사에서 김기영이 한 말이다.

[표 1] 김기영의 공백기(~1997)

시기	활동 내역
1985.	「내일은 비」 시나리오 집필 신한문예영화 스튜디오 매수
1986.	「오렌지 빛깔의 우비」 시나리오 집필
1987.	유락영화주식회사 창립 「천국의 역」 시나리오 집필
1988.	「깊은 뿌리의 여자」 시나리오 집필
1989.	「내 몸은 다이아몬드」 시나리오 집필 「양산도」 시나리오 집필
1989.07.	「환향년」 시나리오 집필 유성영화주식회사 창립
1990.	<죽어도 좋은 경험> 제작 「아라리오 전설」 시나리오 집필
1993.	「태양은 눈물이 싫다」 시나리오 집필
1995.	「뱀눈의 여자」 시나리오 집필
1997.	「생존자」 시나리오 집필 「겨울 무지개」(다른 제목: 「내 몸은 장미」, 「악녀」) 시나리오 집필

공교롭게도 공백기 김기영이 집필한 시나리오는 새롭기보다 익숙하다.

(1) 소위 ‘처녀성’에 대한 특권화 [“옆자리 여학생: 이 애가 아직 병마개를 안 뗐어. / 여학생 A: 폭탄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언제 폭발할지 모를 미국서는 항상 강간당하거나 유괴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때 처녀성을 지녔다든가 남자 경험이 없으면 충격으로 정신 이상이 생겨 병원가게 돼 미국 왔으면 미국 생리를 따라 일찌감치 처녀를 버려 그래야 남자에 대한 공포와 환상이 사라지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온다.” - 시나리오 「깊은 뿌리의 여자」(소장자료 관리번호 CCN001683\_01), S#25]

(2)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와 피학여성의 괴물화 [시나리오 「천국의 驛」(소장자료 관리번호 CCN001687\_01)에서 상이군인이자 성불구자인 석내천에게 소주병으로 성적 학대를 당한 이효녀는 그 후 소주병으로 자위를 하고 순경 김순남과 혼외정사를 한 후 석내천을 죽이기에 이른다.<sup>25)</sup>

(3) 무력한 남성성 [“이참봉: 남자들은 늙으면 지옥에서 사는 거나 같지. 폐경기가 된 여자의 본성은 마귀야. /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곰씨가 방으로 들어와 약 제조 광경을 보고 / 공씨: 병신들 육갑들 하는데, 이번엔 또 누굴 죽일 셈이에요? / 공씨가 발로 화로의 약탕관을 차서 온통 재 먼지를 쓰게 한다.” - 시나리오 「환향년」(소장자료 관리번호 CCN000046\_01), S#50]

(4) 번식에 대한 욕구 [시나리오 「오렌지 빛깔의 우비」(소장자료 관리번호 CCN000057\_01)에서 무정자증 김 박사는-〈이어도〉(1977)의 천남석처럼-몸에서 정충을 뽑아내 배추벌레의 유전인자와 융합시킨다 등 김기영 필모그래피의 주요 설정은 공백기 시나리오에도 반복된다. 곧 김기영 영화를 “동어반복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영화가 비슷한 이야기와 주제”<sup>26)</sup>라는 평은 공백기 시나리오로 확장해도 무리 없이 적용 가능하다.

더욱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김기영 필모그래피를 통해 구축된 통념이 공백기 시나리오에도 확대된다는 점은 공백기 김기영 시나리오가 김기영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자료로 활용되지 못함을 뜻한다. 공백기 집필된 시나리오 「양산도」(1989년 집필), 「아라리오 전설」(1990년 집필), 「뱀눈의 여자」(1995년 집필), 「악녀」(1997년 집필)가 『선집 I』과 『선집 II』에 수록되었지만, 해당 시나리오들이 김기영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전혀 활용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또 평자들에게 김기영 영화는 서사의 엄밀함보다

25) “석내천: 굴러 있는 소주 빈 병을 들어 이효녀의 음부에 삽입한다. 이효녀 비명을 올리나 빈 병의 전후 운동으로 성적 자극을 받아 정점으로 올라간다.” [「천국의 驛」(소장자료 관리번호 CCN001687\_01), S#24], “이효녀 굴러다니는 소주 빈 병을 보다 그 병을 손에 잡고 옷 밑으로 넣고 상기된 얼굴로 뜨거운 숨을 내뿜고 있다. 이효녀는 자위행위를 하는 거다. 뜨거운 얼굴로.” [「천국의 驛」(소장자료 관리번호 CCN001687\_01), S#26]

26) 이연호, 『전설의 낙인』, 한국영상자료원, 2007, 51쪽

논리·감정의 과감한 생략이 연기·미장센 등 화면 영역에서의 과장된 표현법을 통해 (무)의미화 되는 방식으로 향유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백기 김기영 시나리오들은 그 자체로 향유되기도 애매한 위치에 있으며, 연구 자료로서도 김기영이 영화에 대한 열의를 지속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이연호: 최근에 새로운 시나리오를 탈고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김기영: 내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다. 시대 배경은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까지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어렸을 적에 강원도 금화군 근남면 양지리에서

살았다.(강조-인용자) (중략) 할아버지가 서울의 종로에 있던 집을 팔아서 그곳의 땅을 5만평이나 산 지주였기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다. 그 땅은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다. 몇십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있다가 꼭 마지막으로 만들고 싶어서 시나리오를 썼다.(강조-인용자) 10개월 동안 청평에 있는 기도원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씨내려갔다. 지금까지 3번을 고쳤는데 아직도 양이 너무 방대해서 500매를 300매로 줄이고 있는 중이다.<sup>27)</sup>

이야기는 내가 직접 체험하고 주위 사람들의 실화를 한 데 묶은 자서전 같은 것(강조-인용자)이다. 내가 자란 강원도 금화군 근남면 양지리 일대는 지금도 황폐화되어 민가나 주민이나 하물며 나무 한 그루 그림자까지 남김없이 전쟁에 소멸됐다. 결과적으로 이 고장 출신은 나 한 사람만 남은 것을 알았다. 이 이야기를 그냥 이 지방에 파묻어 두기에는 너무 슬프다. 전쟁의 비화를 그대로 숨겨둘 수는 없다고 본다. - 「제작의도」(소장자료 관리번호 ZC0000035\_01)

이러한 맥락에서 시나리오 「생존자」는 주목을 요한다. 두 인용문을 조합하면 「생존자」는 김기영이 “어렸을 적 강원도 금화군 근남면 양지리”의 기억을 “몇 십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있다가 꼭 마지막으로 만들고 싶어서” 쓴 “자서전 같은 것”이다. 김기영

27) 이연호, “반 백년의 고독과 서른 하나의 영화 사랑”, 《KINO》, 1997.01., 39-40쪽.



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생존자」는 기존 김기영 연구에 누락된 두 가지 요소를 밝혀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바로 (1) 강원도-소년시절과 (2) 말년성의 한 사례<sup>28)</sup>이다.

김기영의 (1) 강원도-소년시절은 전기적 정보에서 항상 누락되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의 기억이 오랜 기간 김기영에게 영향을 끼쳤다면, 이 시기는 앞으로 보다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 컬렉션에는 「생존자」와 함께 김기영의 강원도 시기를 밝혀 줄 자료가 두 편 포함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1989년 7월 권태봉이 제기한 소송에 의해 김기영에게 송달된 「변론기일소환장」(소장자료 관리번호 ZH0000341\_01)이다. 권태봉의 청구원인은 1933년 김기영의 조부(祖父) 김두성이 권태봉의 부(父) 권순재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1959년 김기영이 법률적 이유 없이 경료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원인무효인데, 그 부동산이 바로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721”이다. 근남면 마현리(馬峴里)는 김기영이 어렸을 적 살았다고 진술한 근남면 양지리(陽地里)와 매우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우측 “철원종합도” 참조). 그러므로 「변론기일소환장」을 통해 우리는 김기영이 거론한 강원도 양지리에서의 기억을 허공이 아니라, 실제로 가깝게 조정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자료는 「단책의 망령」(소장자료 관리번호 ZC0000048\_01 \*전문(全文)은 이 글의 [부록] 참조)이다. 1992년 이후 집필된 것으로 추측되는<sup>29)</sup> 「단책의 망령」은 제목과 저자만 명시된 단출한 표지와 서술자가 ‘나’인 7쪽의 산문으로 이뤄져있다. 표지에 저자로 표기된 김기영과 산문의 ‘나’ 사이를 굴절하는 장치가 없으며 산문에 소개되는 ‘나’의 이력이 김기영과 동일하므로, 「단책의 망령」은 김기영의 자서전 자료로 보인다.

28) 잠정적인 입장이나, 나는 김기영의 말년성을 두 사례로 나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7년의 김기영의 재발견이 그에게 지극히 타율적이며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더하여 이 글에서 말년성은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년의 양식에 대하여』에서 양식화한 ‘말년성’이 아님을 밝혀둔다.

29) 이 자료에는 탈고 날짜, 제작사, 관계 서류 등 제작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단서가 없다. 하지만 타이핑에 사용한 서체가 <김기영 문헌자료 컬렉션> 속 1992년 이후 자료와 동일하므로, 이 자료의 생산 시기를 1992-1998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단책의 망령」의 제재는 「생존자」 집필 의도에서 거론된 김기영의 강원도 시기다.

철원종합도



다음 장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단책의 망령」과 「생존자」의 에피소드는 노골적으로 겹친다. 즉 김기영이 「생존자」 집필에 앞서 강원도에서의 기억을 풀어낸 것이 「단책의 망령」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김기영이 강원도의 기억을 “몇 십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다는 진술을 경유해, 「단책의 망령」(으로 형상화된 강원도의 기억)을 비단 「생존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김기영 필모그래피 전반에 반복되는 요소를 응축한 자료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표 2] 「단책의 망령」과 「생존자」

「단책의 망령」 (소장자료 관리번호 ZC0000048\_01)

그날 밤 어두운 등잔불에서 신방을 갔든 일을 신기로처럼 떠 올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방에서 풍기던 향내가 날 이때까지 황홀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 향냄새는 소금장사가 마을마다 찾아가 여자들을 매혹시키고 있는 『우데나 그림』 냄새다.

그 집에 보다 큰 사건이 터졌다. 시어머가 밤늦게 집 밖의 둥근 퇴비를 채우는 허간에 용변을 보러 갔을 때 그 안에서 여자가 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엄청난 소리를 듣고 혹시 아들과 메뉴리가 그 곳에서 힘들게 애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고 신방 문을 여니 잠에 떨어진 신랑은 있어도 신부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무서움에 떨며 몽둥이를 들고 허간을 습격하자 후다닥 남자는 도망가고 그곳엔 가련한 메뉴리가 땀투성이가 돼 기절해 있었다. 동리여자들이 폭풍처럼 밀려들어 '린치'에 가담했다. 이집저집에서 오줌둥이를 들고 와 신부머리서부터 부어 내렸고 치마를 벗겨 갓난싹을 뽑는 것을 시작으로 부지깽이로 성기 속을 쑤셔 피를 난자하게 흘리게 하는 폭행도 했다. 신랑은 너무 무서워 방에서 어린 애처럼 울고 있었다.

「생존자(生存者): 뜨거운 감격」 (소장자료 관리번호 CCN001733\_01)

이때 안병록 운전수가 불쑥 들어와 서까래에 흰 고무신과, [우데나] 크림을 매달며 안병록: 이 신발 맞는 여자 흠애비 재미 좀 보게 나타나라고 해. 크림 바른 여자는 십리 밖에서도 냄새 맡고 찾아갈 테니 집에서 기다리면 된다. (S#42)

동리부인A: 죽여버려. 이 동네에 열녀는 못나올망정 화냥년은 둘 수 없다. 동네 망치려고 이 년이 온거냐

동리부인B: 큰 것 맛이 어떻더냐. 쌍둥이가 뱃속에 개새끼처럼 꾸물대는 것 아냐.

남편몰래 도둑질 해서 가진 아이가 도둑놈 밖에 더 돼겠냐. 쑤셔내라 쑤셔내 동리 부인들, 부지깽이를 갖고 나와 기둥에 결박된 희수의 하체에 쑤셔 넣는다. 피가 분출한다. 옷을 찢고 구정물과 오줌둥이를 위에서 부어내린다. 처참한 사형 분위기가 점점 음산한 분위기로 빠져든다. 흥분과 분노가 율법의 복수로 치달았다. 복녀와 갓난이는 공포에 떨었고, 반석(희수의 남편-인용자)은 고개를 돌려 울었으며, 개똥이는 동네 아낙네들이 모두 정신이상인 아닌가 하고 이를 악물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대 우리 민족의 평균 수명은 삼십 세도 못 된다. 극심한 일본의 식량 약탈은 보통 남자는 이십 세 가량 되면 영양 부족으로 폐결핵에 걸려 아까운 청춘을 피를 토하며 죽게 된다. / 그대 민족의 피줄을 이어갈 지혜로 조혼을 장려하고 자손을 빨리 받을 풍속을 열었다. 옛 사람들도 남자는 두 살이면 정혼이 생선되는 것을 알았고 여자는 열여섯 살이어야만 월경이 시작됨으로 신랑은 여덟 살, 신부는 열여섯 살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 결혼식날 꼬마신랑이 말이 무서워 몇 번이나 떨어지면서도 눈물 범벅이가 되어 말을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삶의 무거움을 절실히 느꼈다. 여름날 냇가에서 수영하다가 꼬마 신랑의 육체 일부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친구들이 모여 들어 그 사연을 묻자 어른이라고 지칭하는 신부가 밤이면 자주 손질해서 빨갈게 까낸다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애를 받은 신부의 하는 일이라고 들먹거렸지만 난 이유가 궁금했다. 동시에 새침 띠고 못된 장난을 하는 그 신부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다.

- 「단책의 망령」 (소장자료 관리번호 ZC0000048\_01)

가령, 위 인용문의 사건 이후 ‘나’ 곧 어린 김기영은 “그 신부의 얼굴”을 보고 ‘눈동자가 새까만 여자는 상대 말라 핑장한 색깔이 되어서 남자를 피를 토하고 죽게 만든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는 그날 ‘나’는 신부와 정사하는 꿈을 꾀다. 시간이 흘러 10년 후 ‘나’는 그 신부를 “십년이나 짝사랑”했다고 털어놓기도 한다. 이처럼 「단책의 망령」은 비록 7쪽의 짧은 글이지만, 김기영 필모그래피에서 반복되는 (1)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표 2 참조) (2) 무력한 남성성 (3) 변식에 대한 욕구가 모두 응축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책의 망령」 그리고 「생존자」가 겨냥한 강원도에서의 기억이 김기영 영화에서 신경증적 반복을 추동하는 원초적 장면(primal scene)으로 기능한 것은 아닐까? 즉 김소영의 용어법을 차용해 김기영 영화의 주제가 전근대와 근대의 경합 혹은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면,<sup>30)</sup> 바로 김기영의 강원도 시기가 전근대 그리고 억압된 것의 정체는 아닐까?

30) 김소영, 『근대성의 유령들』, 씨앗을뿌리는사람들, 2000.

순자: 복녀 아줌마. 이 오빠 구제불능은 아니에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던가 부모가 한 생명을 지구상에 내놓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나를 알게 되면 남성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일어난 충격적인 비밀은 꼭 내가 찾아내고야 말겠어요. 복녀: 그걸 찾으면 아마 철민은 자살할 정도의 충격을 받는다. 순자: 자살하거나 완쾌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시켜야 됩니다.

- 「생존자(生存者): 뜨거운 감격」 (소장자료 관리번호 CCN001733\_01), S#152

전시戰時 박창훈은 마을이 미군美軍 위안기지가 됐을 때 어머니 옥포(명인)이 양양공주가 됐을 때 철이 없어 단지 경쟁심으로 흑인 G.I 들을 끌어들이는데 맹활약을 해서 가장 많은 돈을 어머니가 벌게 했다. 어느 날 처음 보는 남자며 국군상사가 훈이라고 불으며 이 행위에 대노해서 자기와 어머니에 폭행을 가하고 울며 떠난다. 어머니는 자살하려는 것을 일가친척이 모여 국군 상사인 개똥이 즉 훈이 아버지를 전쟁으로 목숨을 불일리는 불상한 여성들을 이해 못하는 민족의 비극을 만드는 남자라고 한민족이 국난 때마다 여자와 외국 군인한테 겁탈을 당해 혼혈아를 낳아 길렀고 채홍녀로 많은 젊은 여자들이 이국에 끌려가 일생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이민족 여성들의 인생을 상기들었다. 훈은 뒤에 미군의 폭행을 당해 빈사 상태에서 고모에 의해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나 어릴 때 아버지의 대노와 폭력이 잠재의식으로 전쟁상태에 상처를 줘 여자에 대한 거부감과 불결감이 일어나와 여성 기피증 환자로 성장했다.

- 「박창훈의 內向的性格」 (소장자료 관리번호 ZC0000038\_01)

「생존자」가 탐색의 내러티브라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흥미롭다. 「생존자」의 주인공 철민은 “충격적인 비밀”로 논해지는 과거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성욕(위 인용문에서처럼 「생존자」는 이를 “남성”이라 칭한다)을 잃어버린 인물이다. 그 사건의 시발점은 철민이 어린 시절 마을이 “미군 위안기지가 되어 어머니 옥이 양공주가 됐을 때 (...중략...) 흑인 G.I 들을 끌어들이는데 맹활약”을 한 것이다. 이처럼 「생존자」는 노골적으로 철민이 유아기의 원초적 장면을 대면하고 이를 통해 “남성”을 되찾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김기영이 공공연히 프로디안(Freudian)임을 밝혀왔으므로, 이러한 원초적

장면에 대한 탐색의 내러티브는 무의식적 결과가 아니라 그의 의지적 소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바로 이로부터 김기영의 (2) 말년성의 한 사례로서 「생존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김기영은 「생존자」를 통해 그의 영화의 주제로 작동해온 전 근대 혹은 억압된 것을 대면하고, 이를 통해 그의 영화에 반복된 신경증을 해소(解消)하고자 한 것처럼 보인다.

이 영화는 한민족의 잊어버린 「노스탈지어」를 찾아 현대생활이 이조고전 지혜로운 풍속에 비해 어떻게 변천했나를 조사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다. 젊은 세대가 김치·깍두기를 안 먹고 쌀밥을 먹고 밀가루 생활에 젖어 밀단비대증 골병 근육병 정신박약아형태로 등교하는 아동을 볼 때 또 다시 전쟁의 충격파나 공해 정치병동 불안 대처 흥미로운 상상을 해본다.

- 「〈생존자〉 기획 관련 메모」 (소장자료 관리번호 ZC0000036\_01)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초월적(transcendent) 기호로서 ‘한민족의 전통’이 소환된다는 점이다. 위 인용문에서 김기영은 「생존자」 집필 계기의 하나로 “젊은 세대가 김치·깍두기를 안 먹”는 생활 습관을 지목한 바 있다. 또 다른 글에서는 “한국국민으로서의 충성 의무와 정서와 풍속을 잃고 더구나 언어마저 잃은 미국국적의 한국인들!”[「지옥의 노스탈지어, 절대만향, 아라리오天國의 製作意圖」(소장자료 관리번호 ZC0000078\_01)]<sup>31)</sup>을 비판하는 오락영화로 「생존자」의 기획의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도는 「생존자」의 결말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생존자」는 비극이 시작된 고려마을을 박철민을 위시한 등장인물들이 찾는 것으로 끝난다. 마지막 대사는 박철민의 어머니이자 ‘양공주’로 고난을 겪어 미국에서 흑인분장을 하고 산 옥이 분장을 벗고 강원도 아리랑을 부르는 것이다. “흑인부인,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 먹이 지워지고 한국인의 하얀 얼굴이 되살아난다. 그리고 그 시원한 기분을 다시 소리 내어 구가(謳歌)했다.”(「생존자」,

31) 「지옥의 노스탈지어」, 「절대만향」, 「아라리오天國」은 〈생존자〉의 다른 이름으로 보인다. 등장인물의 설정이 다르지만, 이 글에서 소개되는 내용은 「생존자」 그리고 「생존자」와 동일한 문제의식 속에서 집필된 「박개똥」과 많은 부분 유사하다.

S#276) 김기영은 탈고 표시 아래에 강원도 아리랑 가사를 적어두기도 했다. 김기영 〈하녀〉 연작의 ‘명자(들)’이 서울로 올 수 밖에 없었던 급격한 근대화, 또 「생존자」의 등장인물이 고난을 겪은 사건인 일제강점기, 6.25 전쟁이 바로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한민족의 전통’은 지극히 아이러니하며 초월적인 방식으로 김기영의 말년에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면 기호로서 ‘한민족의 전통’은 다른 김기영의 공백기 시나리오 오에서도 종종 관찰된다. 가령 시나리오 「내일은 비」(소장자료 관리번호 CCO000265)에서 악역으로 기능하는 철한을 철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형(철수-인용자)은 허술한 우리나라의 풍토를 그 알량한 컴퓨터로 파괴하고 있어요.”(S#97) 철한이 개심한 계기가 된 지선의 노래도 은근히 전통을 소환한다. “합창: 우린 잘 살 수 있어. 돈에 욕심 안 내고- 땅에 씨앗만 심으면 우린 잘 살 수 있어”(S#130) 또 「깊은 뿌리의 여자」에도 ‘한민족의 전통’의 기호는-시나리오 내부의 이탈리아, 미국인들의 풍토와 대비되며-곳곳에 등장한다.

그러므로 이 짧은 해제가 마무리되는 지금, 이번 장의 서두에서 공백기 시나리오 다수가 김기영 이해를 넓혀줄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던 추측은 철회해야겠다. 해석의 초점을 새로이 설정할 때 공백기 시나리오를 위시한 컬렉션 자료는 김기영의 새로운 모습을 비쳐줄 것이다. 공공롭게도 김기영의 새로운 모습은 언제나 새로운 시네필 집단을 동반했던 것 같다. 이효인이 『하녀들 봉기하다』<sup>32)</sup>를, 이연호가 『전설의 낙인』을 썼듯 말이다. 이것은 우연일까 혹은 시네필 집단의 의식적 결과일까. 무엇이건 컬렉션을 통해 포괄적으로 공개된 김기영 관련 자료들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한국영화사의 모습을 비추한 채, 새로운 열람자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32) 이효인, 『하녀들 봉기하다』, 하늘아래, 2001.

## [부록]

### 단책의 망령※

김기영

내가 겪은 어린시절 상황은 지금 사람들에게는 불가사의한 신화처럼 느껴질 것이다. 1930년 내나이 여덟살 강원도 금화군 대성산 밑 마현리라는 산마을에 살고 있었다. 이 부근 사람들은 대부분 화전민들이라 봄이되면 산에 불을놓고 그재로 덮인 땅에 감자 강냉이를 심어먹고 살았지만, 춘궁기가 오면 나부터 소나무 껍질을 버겨 삶아 먹든가 전식구가 논밭을 경작하는 마을에 내려가 사료로 쓰이는 벼게를 구걸해서 끓여먹고 목숨을 이었다. 제사로 빚을지면 아들을 북해도 탕광 인부로 십원을 받고 넘기고 딸은 백원을 받고 삼년 기한으로 창녀로 팔아 없었으나 누구하나 도라오진 않게된 듯하다. 그때는 지금과 달라 지구온실 효과가 없는 탓인지 혹한이 들어닥치고 간벌이 초목을 모두 태워 죽이는 기상 변화가 심했다.

물도 없고 농약도 없는 평야의 벼 농사는 비료로 봄철 가랑이를 따다가 논물에 던져 우러나게 하는것이 전부였다.

한마지기 벼수확량은 한섬이 못미쳤으니 지금의 다수확의 통일벼가 그때의 열배의 수확을 올리고 있다면 놀랄것이다. 그나마 가을이 되면 조선총독부는 경관을 동원해서 집집마다 뒤져 제사에 쓸 쌀 한톨 안남기고 공출이라고 빼서갔다.

※ 소장자료 관리번호 ZC0000048\_01

띄어쓰기, 오자, 맞춤법 등 일체의 교정 없이 원문을 그대로 옮겼다.

원래 청나라가 방임할만치 가난한 이땅을 탐낸 일본의 이유는 그 당시 일본 국내에 식량이 떨어져 쌀소요가 여러곳에서 폭발하자 우리쌀을 송도리채 찾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축모양 풀로 사육할 작정으로 일청 일로전쟁에 많은 희생을 내면서도 이땅을 삼켜버린거다.

당시 총독부는 이 땅의 교육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겨우 한군의 하나의 국민학교를 뒀다. 물론 중학교는 도시에만 몇있었다. 나는 이십리가 넘는 국민학교 다니기를 담념하고 동네 글밭에서 종아리를 맞아가며 천자문을 무턱대고 외웠다. 글방 친구에 동갑인 철수라는 꼬마가 있었는데 별아간 장가를 들게 돼버린거다. 그 때 풍속으로 그리 신기한 사건은 아니다.

오히려 아들을 일찍 장가보낼 수 있다는 것은 넉넉하다는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여덟살 나를보고 우리집은 그럴 형편이 못돼 너를 장가 못 보낸다고 울었으니까. 그 시대 우리 민족의 평균 수명은 삼십 세도 못 됐다. 극심한 일본의 식량 약탈은 보통 남자는 이십세 가랑되면 영양부족으로 폐결핵에 걸려 아까운 청춘을 피를 토하며 죽게 됐다.

그래 민족의 핏줄을 이어갈 지혜로 조혼을 장례하고 자손을 빨리 받을 풍속을 열었다. 옛사람들도 남자는 두 살이면 정충이 생산되는 것을 알았고 배후 여자는 열여섯살 이어야만 월경이 시작됨으로 신랑은 여덟살 신부는 열여섯살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결혼식날 꼬마신랑이 말이 무서워 몇번이나 떨어지면서도 눈물범벅이가 되어 말을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삶의 무거움을 절실이 느꼈다. 여름날 냇가에서 수영하다가 꼬마신랑의 육체일부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친구들이 모여들어 그 사연을 묻자 어른이라고 자칭하는 신부가 밤이면 자주 손질해서 빨갯게 까낸다는거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애를 받은 신부의 하는 일이라고 들먹거렸지만 난 그 이유가 궁금했다. 동시에 새침피고 못된장난을 하는 그 신부의 얼굴이 보고싶어졌다.

원형 초가집을 신랑 안내로 들어간 나는 깜짝놀라 눈을 어데다 돌지 몹시 당황했다. 그럴것이 시어머니 며느리 딸이 궁둥이가 보일정도로 치마를 걷어올리고 정신없이 이로 찢는 삶은 대마초 껍질을 하얗게 들어낸 넓적다리 살에 문질러 벼실을 뽑는 작업을 하고 있는거다. 그 때 농가는 집집마다 자시손으로 짠 포복으로 자급자족 하는 생활 태세를 갖추고 있어 외부에 사들이는 물건은 소금밖에 없었다. 신방에 안내된 나는 깊숙한 절을 교환하고 얼굴을 들었을때 벼락을 맞은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백자같이 흰피부에 분홍빛 볼 그리고 앵두같은 입술이라면 보통하는 표현이나 그녀들의 검은눈동자의 검미란 상상할 수 없을만치 깊고 옷칠과 같이모든 광선을 흡수해갔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눈동자가 색까만 여자는 상대말라 굉장한 색꿀이 돼서 남자를 피를 토하고 죽게만든다.” 내몸에 죽음의 공포가 그 눈에서부터 와닿는 듯싶었다.

신부는 배한개와 대추 밤 몇 알을 내놨다. 그리고 옆에 놓인 빨간칠에 검은 쇠로 장식한 세간을 열고 두권의 책을 내놨다. 친정어머니가 넣어주었다는 이 책은 석판으로 색칠을 넣만은 표지에 불과 이삼십 『페이지』의 당책 또는 단책이라고 불리는 다이제스트 소설로 박문서관 출판의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돌고 있던 계몽서적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 서적문화는 말살됐고, 몇몇 문인이 내는 책은 모두 불온서적으로 몰수되어 감히 책을 살수도 없었다.

단지 『판푸렛』 비슷한 단책만이 촌시장에 선보이이고 서울 뒷골목에 단돈 오전에 허트러져 우리문맹 민족이 언문을 깨우쳐야되는 유일한 이유와 목표로 존재했었다. 그 책들 속에는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장화홍련전』 『수일과 심순애』 『추풍감별곡』 등이 있었다.

이 신부는 『춘향전』을 빌려주겠다고 한다. 무슨 보물같이 책을 다루는 것에 이해가 안갔다. 또 한권의 책은 부끄럽다고 감췄다.

그날 밤 어두운 등잔불에서 신방에 갇든일을 신기로 처럼 떠 올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방에서 풍기던 향내가 날 이때까지 황홀하게 만들고 있으니까말이다. 그 향냄새는 소금장사가 마을마다 찾아가 여자들을 매혹시키고 있는 『우테나 크림』 냄새다. 계란 한꾸러미로 바뀌가는 몹시 귀중한 화장품이다. 그 때 닭은 사료가 없어 풀을 뜯먹고 살기 때문에 일 년에 계란을 열 개를 낳면 깃득한 편이었다.

나는 난생 처음 나이 여덟살에 우리나라 고전인 춘향전의 뚜껑을 연것이다. 동시에 별안간 여자가 그리워지고 성욕을 느낀 생리현상도 처음만봤다. 춘향과 이도령의 첫날밤 정사장면 묘사는 어린 나에게 충격적이다. 요새 사람들이 짐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글방 소년 이도령의 나이는 아홉살 성춘향의 나이는 열여섯살인 것에 주목해야 된다.

그묘사 구절이 창 의 일곱자로된시로 다듬어져 아름다움이 철철넘쳐 흐르게 한다. 아마 창으로 구성된 춘향전을 책으로 옮겨냈는지 황홀한 정서가 방으로 가득찰만큼 풍겼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손가락이 짜릿해오는 것은 책에 숨었던 신부의 냄새 아니 『우테나 크림』의 행길거다.

『춘향을 부끄럼을, 먼산에 버렸는지

벗은 백마가 되어, 님을 등에 태우고, 찰싹찰싹 때리는, 채쪽맛에 혼빠져,  
다섯바귀나 도니, 봉오리는 꽃피고, 불근 빗 꽃향기가, 봄을 노래하니라, 도령은  
심술 굳게, 하체를 넓게 벌려, 만발한 꽃을 보고, 호령을 내리드라,

높은신 명에 따라 씨앗을 뿌리노니, 정성을 다해 깊이, 거뒀네게 하라고』 서민의 오락으로 존재해서 당시의 권위에서 벗어날려고 애쓴 창이라 정사 장면의 묘사만 잡스럽지 계급풍자의 짹짹한 우습이 담기게 각색돼 있어 몹시 성적 충동을 실감케 되어있었다.



나는 그날밤 어린꿈에 그 신부와 정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상은 이루지 못했다. 신체가 발달 못한 탓일거다. 기대에 찬 또한권의 남녀 사랑의 책을 빌리러 가기전에 그 집에 보다 큰 사건이 터졌다. 시어머니가 밤늦게 집밖의 둥근 퇴비를 채우는 허간에 용변을 보러 갔을때 그안에서 여자가 큰나무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엄청난 소리를 듣고 혹시 아들과 메누리가 그곳에서 힘들게 애를 만드는 게 아닌가하고 신방문을 여니 잠에 떨어진 신랑은 있어도 신부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무서움에 떨며 몽둥이를 들고 허간을 습격하자 후다닥 남자는 도망가고 그곳엔 가련한 메누리가 땀투성이가 돼 기절해 있었다. 동리여자들이 폭풍처럼 밀려들어 '린치'에 가담했다. 이집저집에서 오줌둥이를 들고와 신부머리서부터 뱉내렸고 치마를 벗겨 갓난싹을 뽑는것을 시작으로 부지깽이로 성기속을 쑤서 피를 난자하게 흘리게하는 폭행도했다. 신랑은 너무 무서워 방에서 어린 애처럼 울고있었다. 그는 신부의 간통보다 동리여자들의 사나운 발작에 혼비백산한거다. 간부는 달구지꾼으로 각지를 돌아다니던 호레비로 그날밤으로 일본 탄광으로 도망갔다. 동리여자들은 신부의 친정을 차저가 모진 집안망신과 동리망신을 준것도 큰 '이벤트'였다. 결국 신부는 친정집 돼지우리에 쳐넣고 개선을 했다. 그때 나는 뽕가뽕지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 아름다운 그녀는 뽕든지 해도 좋은 가치가 있으니만큼 판짓을 했다해도 도모지 글렀다고는 생각이 안들었다. 어쩌면 나하고 그런일이 벌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열두살 되던해에 촌에서 물러나와 서울의 국민학교에 다니게됐다. 맡겨진 곳은 삼촌이란 흰수염이 긴 친척 할아버지였다. 한나라때 하급관리를 한 사람으로 청렴하게 살림을 꾸민 집안이다. 아침이되면 삼촌할머니는 동백기름으로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신명에 기도하고 부엌음식을 차리는것이 그때 무척 거룩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내놓은 조반이나 저녁은 콩나물죽이나 시레기죽이다. 그당시 서울 주민들은 모두 죽을 먹는 가난한 식민지죄수를 일본 경찰 감시아래 죽을때까지 죽을 몇독을 먹어야하냐고 셈을 셀 지경이었다. 삼촌은 집에서 식사를 하는것을 못봤다. 인사동이나 제동의 양반지주나 친일파 귀족집 사랑방에서 하루하루 나오는 식사를

하루종일 기다려 얻어먹고 도라오는거다. 그사랑방을 가춘집은 전국에 몇군데나 있어 명가로 손꼽혔다. 종교가, 사상가, 시인, 명창, 화가, 학자들이 무전여행으로 전국을 돌며 찾아 모였고 그곳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대화가 벌어지고 경찰이 오고갔다. 지금 이러한 대화의 사랑방은 한군데도 없다. 나는 사랑방에 다니는 삼촌입에서 조선동립단이라든가 상해임시정부 또는 국내에서 경찰이 결사코 잡으려 다니는 불량당이라는 것이 국내에 침입작전을 펴고있는 독립당원이라는 것도 알았고 우리태극기 모양이 어땠는 것인지도 배웠다. 즉, 사상교육을 받은셈이다. 중학을나와 일본학생과 학교입학을 다투는 재수생시절 일본은 우리민족을 죽음의 일선에 끌어낼 유화책으로 서울서 쌀배급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혼 오작되는 쌀은 절반은 사료에 쓰던 콩깨묵이고 일본인은 백미만을 배급했다. 잡곡이라도 좋으니 배를 불러보겠다고 고향인 김화의 산마을 촌을 한번 찾게됐다. 동리청년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날 맛있고 모밀국수 타령끝에 밤에 개울을 뒤희 버드락찌란 잠자는 물고기를 잡아 솥으로 가득이 끓여놓고 동리 사람들을 청해봤다. 뜻밖인 것은 반가워하는 꼬마친구 철수가 나보다 크게 성장해서 씨름꾼으로 동리에서 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결혼에 한번 멍드러 일생을 결혼 안한다고 십년을 버티고 있는 것에 집안과 많은 충돌이 있다는거다. 내가 슬거머니 불러 물었다. 그 천하일색의 미인과 헤어진지 몇 년이되지 꼭십년이 된다고 증언거렸다. 왜 다시 장가 안가나 그 여자가 나를 병신이라 깔보고 판남자와 재미본 것을 어떻게 복수하나 그것이 선결 문제가 돼서 결혼 못하겠다고했다. 그여자 저주에 걸린 게아냐 그녀는 시집 간거냐고 했더니 시집 안가고 있지만 너무 소문나 이 지방에선 시집 가진 다 틀렸다고 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겠는데 사실은 서울에 가도 그런 미인은 없다. 이제 털어 놓는데 나 그여자를 십년이나 짝사랑하고 있었어 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했다. 그런 환향년하고 결혼하다니 절대안된다고 피를 올리더니 그 청년 별안간 울어터졌다. 자기 가슴은 십년을 두고 편안한 적이 없었다고 산에 올라가면 그녀 이름을 부르며 원망 했다. 그러나

데려온다면 동리 전체가 날 죽이겠다고 들고일어날 것이고 동시에 영영 날 병신취급할거다. 어머니는 그랬다간 목매겠다고 나무에 줄을 건 것이 몇 번 있었다고 했다. 난 배운 사람으로 충고하는데 네 인생은 네 인생이라는 걸 알리고 싶다. 모든걸 다버리고 너혼자 그여자집을 찾아가서 그녀방에 뛰어들어 아네로 다시 맞아 살테니 어데든지 가자고 호령을 내려보라. 그집식구들 너무 고맙고 감격해서 벌벌떨거다. 너는 천천히 여자를 이불속으로 끌어들여 네 긴장한 육체로 뽀뽀를 보여주라 여덟살 짜리 왜소환 과고는 즉시 살아지고 너뒤 감격해 또한번 네앞에 기절해 쓰러질거라고 했다. 물론 난 제삼자로서 헛소리 같은 뉘두리를 했지만 그 청년 그말에 구원을 얻어 그 녀 있는 곳을 찾아갔다고 한다.

내가 대학 다닐때 문과학생들은 모두 일본 학병으로 강제징집되어 일선으로 내보내게 됐다. 나는 자연계 학생이라 면했지만 그 때 시민관에서 보성전문의 장덕수 교수가 연단에 올라 말하기를 학병들이여 나가 피를 흘려라 만약 그피의 댕가로도 조선 사람이 대우를 못받는다면 우리 모두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해서 학생들 한테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을때 웬일인지 사랑방 손님의 사상으로 큰나는 몹시 불안을 느꼈다.

하여간 징병으로 안 끌려가게 될걸 속죄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학병들의 송별을 해줄려고 고향에 가서 돼지 한마리를 잡어올 묘안을 세워 또한번 산마을 을 찾았다. 그 꼬마친구가 날 먼저 자기집으로 끌고 갔다. 부인을 인사시켰다. 그녀는 배한개와 대추와 밤을 몇알 내놓았으나 절대날 쳐다보진 안코 절만 자꾸만 했다.

그때 공격해 들어간 사연을 물었더니 여자 집 마을에선 십년을 서로 생각하고 서로 절개를 지켜온 부부라고 춘향전이상의 미담으로 찬양해서 오히려 집단을 지어 남자 마을을 치고 들어와 마을사람들도 할 수 없이 다시 떡치고 국수를 말어 환영하고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십년전이 동리 여자들은 이여자에게 간통의 「린치」를 가했던 일이

오늘엔 이동리 부인이 그녀를 보고 히죽대며 부러워 하게된 현상이 일어났다.

그여자에게 그때 내게 못빌려준 책 아직 있다고 물었더니 그책 불살아 버렸단다 책 이름이라도 알고 싶다니까 작은 소리로 「추풍감별곡」이라 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직 이 책만은 두려워 못읽었다. 그 촌에서 준 돼지를 한마리 고스란히 갖여오다 청량리역에서 경찰에 걸렸다. 학병 송별용이라고 하자 입을 뻐끔뻐끔하기에 뒤텔을 내쫓더니 임금 모시듯 집까지 경찰이 배웅해 줬다. 지금 그 대성산 밑 산마을은 6.25 때 어느 쪽인가 사용한 세균작전에 전멸해서 한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지금 동리는 흔적도 없고 그 명산인 대성산은 공비가 출현한다고해서 별목이 되어 까까중 산이 된 채 슬프게 서있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기영, 『김기영 시나리오 선집 I』, 집문당, 1996.  
 김소영, 『근대성의 유령들』, 씨앗을뿌리는사람들, 2000.  
 김수용, 『나의 사랑 씨네마』, 씨네21북스, 2005.  
 김홍준 편, 『김기영 시나리오 선집 II』, 한국영상자료원, 2008.  
 신상옥, 『난, 영화였다』,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  
 영화진흥공사 편, 『한국 시나리오 선집 제3권: 1961-1965』, 집문당, 1990.  
 유지형, 『24년간의 대화』, 선, 2006.  
 유현목 『영화인생』, 혜화당, 1995.  
 이연호, 『전설의 낙인』, 한국영상자료원, 2007.  
 이효인, 「김기영」, 『한국의 영화감독 13인』, 열린책들, 1994.  
 이효인, 『하녀들 봉기하다』, 하늘아래, 2001.  
 이효인, 이정하, 『한국영화 씨김』, 열린책들, 1995.  
 조준형, 『영화제국 신필름』, 영화제국신필름, 2009.  
 존 루이스 개디스, 강규형 역, 『역사의 풍경』, 에코리브르, 2009.

### 2. 논문 및 비평문

- 강철웅, 정경담, 함연선, 금동현, 「김기영의 (개)자식들: 강철웅 인터뷰」, 《마테리알》, 2022.03.  
 금동현, “협잡꾼 당신-『김기영 평전』을 위한 단편”, 《마테리알》, 2021.01.  
<https://ma-te-ri-al.online/19721795> (확인:2021.11.23.)  
 송아름, 「1970년대 한국영화 검열의 역학과 문화정치」,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9.  
 이만재, 「베일속의 巨匠監督 金綺泳」, 『사랑받는 사람들』, 울성사, 1979.

정한석, “탐닉자의 별자리-1990년대 시네필과 시네필리아의 일면에 관하여”, 《문학동네》 제24권 1호, 문학동네, 2017.

### 3. 기사 및 인터뷰 (신문 및 잡지)

- 김기영, “영화인 가족”, 《스크린 뉴스》, 1965.05.  
 김기영, 「여정」, 『명화수첩』, 동아일보사, 1971.  
 김기영, “털어놓고 하는 말-그 많던 애인은 다 어디갔소?”, 《뿌리깊은 나무》, 1978.07.  
 김기영, “반역정신으로 영화 《초설》을 만들던 때”, 《영화예술》, 1992.05.  
 김수용, “영화계 사람들 ④ 김기영”, 《영화예술》, 1990.06.  
 김덕조, “「고려장」을 통해서 본 김기영 감독의 작품세계”, 《영화세계》, 1963.05.  
 이연호, “반 백년의 고독과 서른 하나의 영화 사랑”, 《KINO》, 1997.01.  
 이영일, “욕망=검은 피의 마성”, 《씨네마》, 1963.01.  
 “클로즈·업 되는 外畫輸入界의 「라이벌」”, 《씨네팬》, 1960.11.  
 “일본군대의 「새디즘」 추구 / 김기영 감독 「현해탄은 알고 있다」”, 《한국일보》, 1961.11.12.  
 “영화배우 박암 씨 별세”, 《중앙일보》, 1989.03.23.  
 “일흔 여덟에 메가폰 다시 잡은 김기영 감독 반세기 영화인생 ‘악녀’에 바친다”, 《한겨레》, 1997.09.26.

### 4. 구술채록문

- “김수용”, 《아카이브 프리즘》, 2021, 227-275쪽.  
 조혜정(채록연구), “구술채록: 유현목”, 아르코예술기록원,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누리집.  
<https://www.daarts.or.kr/handle/11080/16560>, 최종확인: 2021.11.14.)



## 5. 누리집 및 기타

조준형, “검열서류 컬렉션-한국영화 검열서류 독해를 위한 안내”,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누리집

(<https://www.kmdb.or.kr/collectionlist/detail/view?colId=122>, 최종확인: 2022.05.23.)

홍지로, “현해탄은 알고 있다: 3월의 영화”,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누리집, 2018.03.15.

(<https://www.kmdb.or.kr/story/10/1286>, 확인: 2021.10.13.)

<필름의 해부학자, 김기영 감독>, KBS, 1999, 43분.